

佛 · 英文法 比較

黃 乙 文*

A Comparative Study of French and English Grammars

〈 目 次 〉

들어가며	3. 인칭대명사의 차이
들어가서	4. 시제의 차이
1. 관사의 차이점	5. Gerund 와 Gerondif의 차이
2. 형용사의 차이점	6. Subjunctive Mood 와 Mode Subjonctif의 차이

〈 들어가며 〉

불어는 인도-유럽어(lse langues indopéennes)에서 파생된 les langues néo-latines어에 속하는 언어로서 german족의 이주에 의한 게르만어에 기원을 둔 영어와는 그 계통 자체가 완전히 다르지만, 1066년 Normandie공 Guillaume가 영국의 왕위 계승권을 주장하며 영국에 침입하여 영국의 항구 Hastings에서 승전함에 따라 전 영국을 지배하면서 영국 궁정과 상류사회는 물론 일반 서민들 까지도 불어를 사용토록 한 역사적 사실 덕분에 여러 외국어의 영향을 받은 영어에 불어가 끼친 영향이 지대하게 되어서 사실상 영국과 프랑스란 국가의 차이보다 영어와 불어의 체계상의 차이는 별로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초의 불어 문법책이 영국에서 발간되었다는 사실은 어휘의 상이점보다 언어 체계상 약간의 차이점 때문에 문법적인 정리가 필요했던 것으로 간주되므로 현대 영어가 제각기 그 고유한 style을 확고히 견지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두 언어의 미세한 차이점이라도 고찰해 본다는 것은 세계어로 군림하고 있는 영어와 그 국가적인 비중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불어를 이해하고 교육하는데 있어서 의의가 깊다고 하겠다.

〈 들어가서 〉

1. 관사의 차이점

우선 품사의 수에서 영어는 8품사로 관사를 제외하고 있으나 불어에서는 관사를 포함시킨 9품사로 분류하고 있는 것은 관사의 역할이 부정관사와 정관사의 구별만 필요로 하는 영어에서는 거의 없다시피 하지만, 불어에서는 명사가 남, 여성과 거기에 따르는 복수형까지 명확한 구별을 필요로 하므로 자연히 관사도 명확성을 가져야하는 필연에서 그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독립된 하나의 품사로 분리시키고 있다고

*한국해양대학교 교양과정부 교수(불문학 전공)

볼 수 있다.

게다가 주로 물질명사의 막연한 량을 나타내는 부분관사까지 불어에서 사용하는 점은 영어와는 완전히 다른 구성상의 차이가 되지만, 관사의 용법 자체는 영어나 불어의 차이점이 거의 없다.

그러나 복수형에 있어서 영어는 s나 es를 명사뒤에 붙여서 발음도 (s) 또는 (z) 로 해주어야만 하는데 비하여 불어에서는 명사어미에 대부분의 경우 s를 때로는 x를 붙이지만 전혀 발음은 하지 않고 복수형의 관사로만 단수와 복수의 구분이 가능하므로 이런 점에서 영어보다 더 진보되었다고 할 수도 있으나, 그 보다는 불어의 논리성이 더 두드러져 보인다.

a boy 가 the boys 로 되는 것과 un garçon 이 les garçons 으로 복수화할 적에 발음의 편의성이나 단, 복수 구별의 편의성은 말할 것도 없고 성에서도 명사 자체의 뜻으로만 구별이 가능한 영어보다 불어는 명확히 구분된 남, 여성의 관사 덕분에 관사 자체에서 성이 구별되는 장점이 있다.

a cock, a hen 보다 un coq, une poule가 성 구별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2. 형용사의 차이점

두 언어에서 형용사의 용법이나 그 역할의 차이점은 없으나 그 위치에 차이가 있다. 원칙적으로 영어의 형용사는 명사앞에 위치하고 불어의 형용사는 명사뒤에 위치한다. the blue sky 가 le ciel bleu로 되지만, 불어에서도 사용 빈도가 높거나 짧은 몇몇 형용사들은 명사앞에 위치하여 a young girl 이 une jeune fille로 되긴 해도 문법의 원칙상 예외에 속하므로 형용사가 그 위치면에서 다르다고 지적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영어의 소유격에 해당하는 my, our, your, his, her, its, their 등의 인칭대명사가 불어에서는 소유형용사로 표현되고 성과 수에 따라 각기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명확한 성, 수가 구분된 표현을 할 수 있으나 영어가 소유자의 성과 수에 일치시키는데 반하여 불어는 피소유자나 소유물의 성, 수에 일치시키고 있는 점이 서로 상이하다. 그 예로는 3인칭에서 his father }
her father } 가 son père 로만 표현되어 영어보다 덜 명확해 보이나 문장에서 그녀의 아버지인지 그의 아버지 인지 들어나게 되어 있으므로 과히 문제삼을 일은 아니다. 그 보다는도 형용사는 어떤 형용사던지 간에 반드시 수식하는 명, 대명사의 성, 수에 일치하도록 규정지어져 있어서 불어가 지닌 문장의 논리성을 한층 더 높혀주고 있다. 다음 예문에서 처럼 l'encre est bleue, l'encrier est aussi bleu. 에서 élision되어 있는 경우라도 수식하는 형용사를 보면 그 명사의 성을 쉽게 판별할 수 있고 복수가 되어서, L'encre est bleue, l'encriers sont bleus가 되어도 역시 쉽게 판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은 논리성과 더불어 그 만큼 성의 구별을 불어에서 중요시 한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3. 인칭대명사의 차이

주어 인칭대명사는 Tutoyer 와 Vouvoyer를 2인칭에서 사용하는 것과 3인칭 여성복수가 있다는 점만 영어와 다르지만, 목적격에 해당하는 보어인칭대명사는 직, 간접 목적보어가 모두 동사앞에 위치하는 까닭에 이들 보어인칭 대명사를 사용하는 경우 우리말과 그 어순이 같아져서 외국어인데도 우리에게 친근감을 주는 것이 영어와는 느낌 자체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문장기본 제3형식의 대표적 예문으로 자주 인용되는 I love you.가 불어에서는 Je t'aime. She said to me that..가 Elle m'a dit..로 표현되어 문체도 간결해지고 외국어를 대할 때 느끼는 étrangeté한 감정도 해소되는 것이 보여인칭 대명사의 역할이자 기능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들 대명사가 재귀대명사의 구실도 해서 영어가 소유나 목적격의 대명사위에 self 나 selves를 붙여 (ex: myself, ourselves, etc..) 재귀의 뜻을 나타내는데 비해, 아예 동사와 대명사가 결합한 대명동사의 형태로 재귀의 뜻을 표현하게 되고, 이런 동사들을 불어에서는 대명동사로 독립시켜놓고 있다. 다음 예문처럼 "He picked himself up."이 대명동사를 사용하면 "Il s'est levé."로 되어 주어의 행동이 자신에게 되돌아 가는 재귀의 의미는 동일하더라도 불어에서는 문장 구조가 달라지게 된다.

4. 시제의 차이

시제의 형태상 차이점에서 가장 괄목할 것은 미래시제에서 조동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영어에서는 단순과 의지미래로 구분하여 shall 이나 will 같은 조동사를 반드시 필요로 하나 불어에서는 단순, 의지란 구별도 하지 않고 동사 자체의 어미 변화만으로 미래시제를 구성한다(단, 전미래는 예외임). 즉, "I shall never forget your kindness."를 "Je n'oublierai Jamais votre bienfait."로 단순히 어간이 되는 infinitif 뒤에 미래의 어미만 붙인다. 또한 현재 진행형이 영어에서만 자주 쓰이고 있으나 불어에서는 독립된 진행형의 시제가 없고 현재시제가 대신 쓰이기 때문에 "I go to school." "I am going to school."를 "Je vais à l'école."로만 표현할 수 있다.

단지 해석을 현재로 하느냐 진행으로 하느냐는 전후 문맥에 맞도록 그 상황에 따라 주관적으로 결정하면 그만인데, 꼭 진행의 뜻을 강조하고자 할 때는 être en train de+ infinitif 같은 동사구를 사용하여 위의 예문을 "Je suis en train d'aller à l'école."로 표현할 수 있다.

완료시제는 영어에서 현재, 과거, 미래완료로 구분하고 있는 완료라는 명칭을 불문법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제각기 독립된 하나의 시제로 그 명칭을 달리하고 있으나, 그 용법은 대개 같다고 할 수 있는데 서로 대조해보면 명칭상의 상이점이 들어나게 된다. 우선 현재완료의 용법중 완료에 해당하는 "I have finished my homework"는 passé composé로 "J'ai fini mes devoirs"라 표현할 수 있고, "I have just finished my homework"처럼 just 가 삽입되면 "Je viens de finir mes devoirs" 같이 Passé récent으로 표현할 수 있다.

결과나 경험에 해당하는 "He has gone to America."나 "He has been to America."도 "Il est allé aux Etats-Unis."같이 Passé Composé로 표현할 수 있으나 계속적인 용법인 "She has been sick since last Monday."는 현재 시제로 "Elle est malade depuis lundi dernier."로 표현해야 한다.

과거 완료는 어느 용법이던 Plus-que-parfait로 다음 예문과 같이 표현된다.

"When we arrived, the train had already started." "Quand nous sommes arrivés, le train était déjà parti." 또한 미래완료 시제로 된 "If I read the novel once more, I will have read it three times."는 "Si je lis ce roman encore une fois, je le lirai trois fois."

처럼 si 이하의 조건절에는 현재시제를, 결과절에는 단순미래를 사용해야 하듯이 아무튼 “완료”라는 용어는 불문법에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이 영문법과 다른것이다.

5. Gerund 와 Gérondif의 차이

영어의 Gerund 와 불어의 Gerrondif는 서로 그 명칭이 비슷한 까닭(?)에 용법도 비슷한 것으로 간혹 착각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영문법과 불문법을 비교하는 차제에 이 두 요소의 완전히 다른 용법상의 차이를 열거해 볼 필요도 생기게 된다. 우선 영어의 Gerund는 “동명사”란 명칭에서도 그러하듯이 명사와 동사의 구실을 겸하여, 보통의 명사와 마찬가지로 주어가 되기도 하고 동사와 전치사의 목적어나 보어가 되지만, 불어의 Gérondif는 항상 주절의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적 역할을 하는 것이다.

물론 원인, 수단, 방법등을 나타낼 때는 명사적 성격을 띠고는 있으나 영어의 Gerund가 주어와 보어로 사용된 “Seeing is believing.”은 “Voir, c'est croire.”처럼 불어에서는 부정법으로 표현해야 한다.

또한 Gerund가 목적어가 되는 경우인 “I have enjoyed reading this book.”에서 reading 이란 동명사는 this book을 목적으로 하며 명사구를 이루어 enjoy라는 본동사의 목적어가 되고 있으나, 똑같은 표현인 불어의 “J'ai lu en amusant ce roman.”에서는 Gérondif인 en amusant이 읽다라는 동사를 “재미있게”로 부사처럼 수식해주는 상황보어에 속하게 되어 Gerund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6. Subjunctive Mood 와 Mode Subjonctif의 차이

앞서 말한 Gerund 와 Gérondif가 명칭은 비슷하나 용법은 근본적으로 다르듯이 Subjunctive와 Subjonctif 또한 명칭은 비슷하더라도 용법은 전혀 다르다. 전자는 영어에서 “가정법”이고 후자는 불어에서 “접속법”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영문법에서 “접속법”은 아예 없고 영어의 가정법은 불어의 Mode Conditionnel, 즉 조건법이 바로 가정법에 해당되나 접속법의 일부 용법이 가정법의 일부와 비슷한 용례를 보이지만, 약간의 차이는 있다.

우선 영문법의 “가정법”은 현재 또는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가정이나 상상을 가정법 현재시제로 “If it be fine tomorrow, I will go on a picnic.”이나 조건절을 직설법인 “If it is fine tomorrow, I will go on a picnic.”로 표현하나 불문법에서는 조건이 실현될 가능성이 많으면 바로 직설법으로 “S'il fait beau demain, je ferai un pique-nique.” 같이 표현하며, 실현 가능성이 희박할 적에는 조건법 현재인 “S'il faisait beau demain, je ferais un pique-nique.”로 표현해서 내일 날씨가 좋지 못해서 소풍 못 가겠다는 뜻을 강하게 나타내는데, 이런 경우 영문법에서는 “가정법 미래” 시제로 “If it should fine tomorrow, I could go on a picnic.” 같이 표현 하므로 결국 영문법의 가정법 현재와 미래가 불문법의 조건법 현재와 그 용법은 같으나 mode의 명칭과 시제의 명칭이 틀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조건법 현재"가 현재 사실의 반대를 가정한다는 의미에서 "가정법과거"에도 해당 된다. "If I were a bird, I would fly to you."도 "Je vous volerais, si j'étais un oiseau."로 표현할 수 있어서 영문법의 "가정법 현재, 미래, 과거" 모두를 불문법의 "조건법 현재"가 수용하는 셈이다.

그러나 "가정법 과거완료"는 "조건법 과거"로 표현되어야 한다. 다음 예문의 "If I had arrived there by three, I could have met him."처럼 과거에 있어서 어떤 조건이 실현되었다라면 어떤 결과가 생겼으리라는 가정으로 "Si J'étais arrivé là jusque trois heures, je pourrais fait rencontre de lui."로 표현되므로 용례는 같으나 그 명칭이 틀린다는 점은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영문법의 Subjunctive가 불문법의 Conditionnel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Subjontif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불어의 "접속법"의 용법은 주로 주절에 희망, 명령, 필요, 금지, 감정, 의혹 등을 나타내는 동사나 표현이 있을 때 서술자의 주관에 의해 동작이나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므로 비현실적이거나 상상적인 사실을 표현하는 "조건법 즉 영어의 가정법"과는 그 성질이 판이한 것이지만 영어에서도 불어의 "접속법"에 해당되는 표현이 없을 수 없기 때문에 "가정법"의 관용적 용법이나 특수 용법에서 "접속법"과 유사한 용례를 보이고 있다. "I wish I were rich."는 "Je veux que je sois riche."로 "I wish you would help me."는 "Je désire que vous m'aider."로 가정법 과거를 "접속법 현재"로 불어에서 표현하고 있으며, "I wish I had known the fact."는 "Je regrette que je ne sois pas su le fait."와 같이 "가정법 과거완료"는 "접속법 과거"로 표현할 수 있고 그 외에 관용적인 어법으로 정중, 겸손의 표현이 되는 "Would you mind closing the window?"나 "Would you give me this flower?"는 "Veuillez fermer la fenêtre?"와 "Ayez la bonté de me donner cette fleur."로 vouloir와 avoir 동사의 "접속법"을 "명령법"에 사용해서 영어 "가정법"의 관용이나 특수 용법에 대신하고 있는데, 아무튼 영문법의 "가정법"이 불문법의 "조건법"이나, "접속법"과 그 용례는 대동소이하나 그 명칭과 구조는 판이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1. La nouvelle grammaire du françois. Jear Dubois René lagane. Larousse 1974.
2. La grammaire du françois parlé André Rigault. Hachette 1971.
3. Les exercices structuraux françois Réquédât. Hachette 1976.
4. 最新佛文法 방곤, 서정철. 신아사 1981.
5. 불어학개론. 홍승오외 4인. 정음사 1977.

